

여성주의 영화의 진보적인 세계관

‘사회적 성역할’ 강조... 상업주의 결탁한 문화상품 비판도

소설이나 영화속에서 여자들은 오랫동안 행위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여자가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장면이 영화나 소설 속에서 자연스러워진 것이 80년대 이후였다. 이는 사실 이 이른바 ‘여성영화’ ‘여성소설’의 척박했던 역사를 대변해 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페미니즘이 하나의 진보적인 세계관으로 인식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상업주의와 결탁한 페미니즘은 하나의 문화상품에 불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중에도 페미니즘은 특히 소설과 영화속에서 넓은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본격 페미니즘 국내영화

국내에서 페미니즘 영화를 논할 때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영화가 오병철 감독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이다. 90년대 중반 무려 80만부가 팔려나간 공지영의 동명 원작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깊이와 치열함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이라는 뇌관을 본격적으로 건드린 최초의 한국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70, 80년대 여성영화들이 대부분 ‘눈물을 짜내는’ 신파조였던 것과 90년대에 개봉된 <그대안의 블루>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개같은 날의 오후> 등이 여전히 남성의 테두리안에 존재하는 한 개인에게 시야가 한정되어 있거나 남성은 ‘악’을 대변하고 여성은 ‘선’을 대변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영화이다.

30대 여자 세명이 겪는 삶의 위기를 그려내고 있는 이 영화는 소설과는 사뭇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소설이 세상속에서 여자들이 지니고 살아야 할 ‘자기애’를 궁극적인 주제로 선정한 반면 영화는 무거운 주제에 비해 ‘멜로성’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다. 원작자인 공지영이 직접 각색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원작이 독자들에게 던져준 신중함을 희석시킨 것은 영화와 책이 갖는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다.

책이 갖는 서술구조는 세명의 여자들이 행하는 행동들, 이를테면 서로 수다를 떨거나, 성행위를 하는 모습들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여성적인 고뇌를 얼마든지 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는 자칫 잘못하면 그저



공지영 원작, 오병철 감독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중 한 장면.

자전거를 타고, 수다를 떨고, 성관계를 하는 여자들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데 그칠 우려가 있다. 영화라는 장르가 갖는 서술구조의 취약함을 극복하지 못한 이 영화를 두고 ‘무소의 뿔을 뽑아버렸다’는 악평을 하는 평자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무소의 뿔...>의 출현이 페미니즘 논쟁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 영화가 다른 여성영화들과는 달리 여성의 내면에 대한 성찰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한 양귀자의 원작소설을 영화화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 선량한 이미지를 가진 남자를 골라 위해를 가하는 소아병적 테러리스트를 등장시켜 남성전체에 대한 공격에 나섰던 것에 비해 <무소의 뿔...>은 한발 더 나아가 여성들의 사회적 연대감을 묘사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여성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대감을 통해 여성성의 의미를 묘사한 영화중 웨인 왕 감독의 <조이 럭 클럽>(The Joy Luck Club)은 수작으로 꼽힌다. 3대에 걸친 여성사를 그리고 있는 이 영화는 에이미 탄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원작의 미학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웨인 왕 감독은 영화속에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8명의 여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8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속도감을 복원했고 유난히 많은 대사를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배우들끼리의 의사전달 방식과는 다른, 관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나레이션 대사전달 방식을 심분 활용하고 있다. 영화가 소설에 비해



버지니아 울프 원작, 샬리 포터 감독의 <올란도> 중 한 장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서술구조의 약점’을 영화특유의 장치들을 동원,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개봉된 외화 중 페미니즘 걸작으로 꼽히는 <올란도>는 여성주의 영화운동 내부에서 이상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하나의 출발점을 만든 영화이다. 이 영화는 1922년 여성 소설가인 버지니아 울프가 런던의 한 사교클럽에서 만난 여성 소설가이자 디자이너인 비타 색조빌에게 연애편지 형식으로 보낸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결국 이 영화는 감독인 샬리 포터를 포함 70년의 시차를 두고 세명의 여자들의 관계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사회적인 성’ 강조

17세기초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올란도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시들지도 죽지도 자라지도 말라는 말을 듣고 성장을 멈춘다. 그는 영화속에서 1600년(죽음), 1610년(사랑), 1650년(시), 1700년(정치), 1750(사교계), 1850년(성)으로의 시간여행을 한다. 그는 1700년 남자로 살면서 느낀 회의와 좌절 때문에 남자이기를 포기하고 여자가 된다. 그리고 그는 남자로 살아갈 때는 느끼지 못했던 재산상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여자가 된 그에게는 상속권이 없었던 것. 올란도는 결국 재산과 사랑을 모두 포기한 채 오로지 여자로만 남는다.

원작소설은 당시는 물론 지금도 생소한

90년대 이후 페미니즘이 하나의 진보적 세계관으로 인식되면서 페미니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들이 활발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깊이와 치열함이 부족하다는 비판 속에서도 이들 영화는 페미니즘의 자산이자 소중한 텍스트로 인식되고 있다.

양성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무(無)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는 최근의 급진적인 페미니즘과도 상통하며 남성중심의 파괴적인 역사를 거부하는 동양사상과도 일치한다. 또한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대 중산층 여성위주의 이야기 전개방식도 벗어나 있다. 무엇보다 이 소설과 영화가 선진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성차(sexual difference)를 강조하는 이제까지의 작품들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성(gender)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소설과 영화들의 시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이들 문화적 생산물들이 인종과 계층과 시대를 떠나 소중한 페미니즘의 자산이자 텍스트가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허연 기자